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핵실험의 의도는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 축적,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 과시, 미국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및 평화협정 논의 선점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은 2270호가 북한이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의 복귀에 효과적일 것으로 주장한다.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전략이다.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활동을 중단케 할 것임을 강조한다. 제재와 압박만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전략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의 대응

이다. 영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제3자적 입장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는 중시하면서도 정치 문제에는 다소 거리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평화회담 재개와 비핵화 진전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압박과 대화의 병행 전략이다. 러시아도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중심이 있다. 국가 간의 입장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의 느슨함을 예고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당·정·군 기관과 단체를 내세워 ‘말폭탄’의 시위를 전개했다. 3월 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시작으로 정부 대변인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국방위원회 성명, 총참모부 성명,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성명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협박성 말폭탄을 쏟아 냈다.

300mm 신형대구경 방사포와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저강도의 맞대응 무력시위도 지속했다. 김정은 국

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2차례의 군사 분야 현지지도를 통해 핵 무력 강화 의지 표출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급하면서도 공격적인 인사도 서슴지 않았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의 대응은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과격함 표현이 많다. 죽탕·성전·타격 등 위협성 말폭탄이 난무한다. 둘째, 핵 능력을 과시한다. 핵탄두의 소형화·정밀화·규격화·다종화를 강조한다. 수소탄을 주체탄·통일탄으로 묘사한다. 셋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미사일 시험을 직접 지휘하면서 대남·대미 비난도 주도한다.

넷째, 당·정·군 기관과 단체를 내세워 ‘말폭탄’을 이어 간다. 8개 기관이 13차례의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다. 다섯째, 미사일 운영 기술과 핵전력의 공개이다. 핵 기폭장치와 탄두 덮개,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했다. 실험 장면도 공개했다. 평택과 오산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사거리 200km의 신형 방사포, 포항·부산·여수·목포 등 남쪽 항구와 원자력발전소 등의 국가 기간시설에는 사거리 500km의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에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괌을

목표로 하는 사거리 3000km 내외의 무수단 미사일이 주요 공격 수단임을 보여준다. 미사일 전력 노출은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가능하다.

대응을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국면 전환의 가능성을 예고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외부의 위협적 인식보다 내부의 동요 차단을 시급하다. 김 제1위원장은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주민들은 안보에 토대한 경제난 극복을 갈망한다. 김 제1위원장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면서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올해 북한군의 동계훈련 횟수와 규모는 확연하게 줄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신형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핵심을 이룬다. 재래식 군사훈련은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의 병사들이 제7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70일 전투에 동원됐다. 군사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이끌고 정치경제적으로 체제 안전에 토대한 경제발전 전략이 바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이라고 선전한다. 제7차 당대회가 국면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社說

호남 경쟁·수도권 연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어제 시작된 4·13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첫날부터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광주·전남·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에 들어갔는데 새누리당과 다수의 야당이 맞붙은 수도권 선거 결과는 전체 판세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주민들은 안보에 토대한 경제난 극복을 갈망한다. 김 제1위원장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면서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본격적인 유세전이 펼쳐지면서 수도권 야권 단일화에 시선이 쏠린다. 오는 4일이면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에는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급박함까지 더해지는 만큼 이번 추가 사실상 마지막 노선인 셈이다.

이를 감안해 더민주 서울 강서를 후보 표용지 인쇄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에는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급박함까지 더해지는 만큼 이번 추가 사실상 마지막 노선인 셈이다.

다”며 기존의 반대 당론을 견지했다.

애초 더민주의 당대당 연대에 이은 단일화 제의에 대해 국민의당은 ‘죽어도 서서 죽겠다’라는 결기로 반발했다.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것은 양당 구도 타파를 통해 새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데다, 수도권 지지세마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 때문에 풀이된다. 하지만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자당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에 응하고 나서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도권 단일화의 중요성은 야권이 현 국정 난맥상에 경총을 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데 있다.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20대 대선 국면에서 야권 통합을 내다볼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크다. 이미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됐듯이 야권 지지자들의 주된 바램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호남에선 치열하게 경쟁하되, 수도권에서는 연대하라는 것이었다. 진정성만 있다면 시간은 별 문제가 아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에 멍드는 서민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의 고충은 배가 된다. 특히 저신용 서민들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이러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평균 예금금리의 5배가 넘는 금리로 대출 장사를 하면서 손쉽게 이자 마진을 챙겼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스마트·더블 등 지역 저축은행을 포함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이자 순이익은 2조4992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지난해 이자 순이익은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실 저축은행 부실 사건으로 이들의 이자 순이익은 2012년을 기점으로 2014년까지 해마다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저금리로 예금을 받아 금리가 높은 신용 대출에 집중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대폭 커진 것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은 9.78%로 2년 전에 비해

2.57%포인트나 커졌다. 광주·전남 지역 저축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처럼 평균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신용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고객들에게는 저금리로 예금을 받고, 반대로 신용 대출은 금리를 높여 제공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일단 9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 손실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축은행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출금리는 서민의 예금을 받으면서 사실상 법정 최고 금리로 대부업과 구분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이 문제다.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신용 대출보다는 대형 은행이 하지 못한 금융서비스로 안정적인 고객층을 창출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 또한 업권별로 차별화해 저축은행의 최고 금리를 낮춤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예수님의 부활과 20대 선거



조발그니
사신동성당 주임신부

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했다. 사실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으니 민족의 반역자이며 정치적 혁명가로 찍혀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무모한 행동을 했을 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증언한 것은 예수님만을 희망으로 여겼던 가장 가난하고 약한 여성들이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반전’이다. 스포츠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거의 질 것 같은 분위기에서 역전한 경우다.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이탈리아 전과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이 그 예다. 2002년 한국 대표팀은 이탈리아의 강력 한 수비에 밀려 고전했다. 후반전 끝 무렵 동점골과 연장전 추가골이 아니면 월드컵 4강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패색이 짙었던 KIA가 SK를 상대로 9회말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했다. 만일 이들 선수들이 희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두근두근 회자될 멋진 경기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희망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일 것이다.

어쩌면 내리 세 번 지고도 포기하지 않은 이세철도 그런 인물이 아닐까. 2002년 월드컵, 2009년 한국시리즈, 2016년 이세

철의 공통점은 절대로 안될 것 같은데서 희망이 썩든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여성들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희망을 건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때에도 희망을 갖는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과 같이 희망을 갖자고 독려한다.

우리 사회는 점점 희망보다 절망을 이야기한다. 청년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흡수저는 절대 지을 수 없는 낙원처럼 여겨진다. 개천에서 용 나가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어디 그뿐이라, 21세기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도 안되는 일들이 계속된다. 국정원 선거개입,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폭력, 테러방지법, 이런 세상에 희망은 있을까? 그래서 영화 암살의 엄석진처럼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하고 희망을 버려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절대로 안될 것 같은 것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기대가 사라진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부활은 증언하는 자에 의해 알려진 사건이다. 부활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들에 의해 알려진 사건이다.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증언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로 보였던, 의지할 곳 없었던

던 여인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적어도 포기할 힘이라도 남았다면 희망을 가져야 한다. 부활이 반전의 사건이었다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희망이 없는 세상, 반전이 불가능한 세상에 가장 큰 희생자는 자라나는 세대들이다. 18대 국회의원 20대 투표율은 28.1%였다. 이 수치는 최근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며, 2000년 이후 선거에서 30%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해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뺨을 사람이 없네”, “그 나물에 그 밥”, “정치인 다 똑같지 뭐” 라는 푸념과 20대는 못된 세상에 희망을 포기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증언한 이들은 가장 힘없고 약한 여성들이었다. 청년들이 선거를 포기할 때 정치인들은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세상에 희망을 키워낼 수 있는 이들은 청년들이다. 인간에게 시작한 부활은 희망을 품는 것이다. 20대가 원하는 세상은 투표장을 찾아 선거를 할 때 희망의 싹을 틔운다. 절망에 빠진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했던 발걸음처럼 지금의 20대가 투표장에 가서 자신의 한 표를 소중히 표현하는 발걸음이 부활을 만들어 낼 것이다.

기고

우치동물원 마스코트 ‘린린’ 커플 탄생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수의사

락(Recreation & Entertainment), 연구조사(Research), 종 보존(Conservation)이라는 4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종 보존’은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소중한 동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 보존을 위한 암수의 합사는 동물원의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합사(合舍)는 집을 합친다는 뜻으로 동물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원에서 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동물원 관계자 대부분은 ‘합사’라고 입을 모을 것이다.

호랑이나 사자 등 맹수류는 합사가 거의 불가능 한데 간혹 수컷이 혼자 살다 암컷을 받아들여거나 반대로 암컷이 혼자 살다 수컷이 들어오면 서열 다툼 후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대개 서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투쟁을 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합사는 동

물의 심리를 잘 분석하고 무리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는 매우 긴장의 연속을 거쳤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저상무진동 트레일러로 이동했다. 이동 상자를 사육장까지 옮기는 데도 5t 크레인을 동원했다.

이중 전일부터 수의사, 사육사를 파견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동경로 논의 등을 거쳤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저상무진동 트레일러로 이동했다. 이동 상자를 사육장까지 옮기는 데도 5t 크레인을 동원했다.

사육장에서 기린을 내놓는 과정에서도 휴식이나 기린이 흥분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무사히 방사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린’이 새 집에 금세 적응하는 것을 보고 내일 문을 일부 개방하여 ‘아린’과 ‘마린’의 얼굴 익히기를 시도했다. 다행히 ‘아린’과 ‘마린’은 눈이 마주치자 다가간 목을 숙여 서로의 체취를 맡았고, 긴 목을 비뚤었다. 기린 무리에서는 ‘네킨’이라는 특이한 표현방식이 있다. 이는 수컷들이 싸울 때 긴 목을 서로 부딪히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볍게 서로의 목을 비비는 것은 애정표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얼굴을 익힌 후 내일 문을 열어 주자 고맙게도 아린과 마린이 별 무리 없이 목을 서로 비비면서 방사장을 다정하게 걸터다녔다. 성공한 합사라고 보기에 충분했다.

기린의 성(性) 성숙은 보통 4~5년으로 마린(수컷 기린)이 내년이면 성적으로도 완벽하게 성장할 것이고, 아린도 출산 경력이 있어 둘 사이 2세가 생길 확률이 높다. 아린과 마린이 잘 어울려 지내준다면 우치동물원 최고의 인기 ‘린린’ 커플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암살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자면 ‘라쉬드 알 딘 사난’을 빼놓기 어렵다. 1190년대 당시 시리아 이스마일 파의 지도자이자 미스ტი프 성의 성주이기도 했던 그는 십자군에게는 ‘산상의 노인’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잘 알려져 있지만, ‘산상의 노인’은 젊은이들을 꾀어 마약인 ‘해시시’를 먹인 뒤 자신의 ‘비밀 정원’으로 데려가 여자들과 어울리게 함으로써 천국의 맛을 보게 해 주었다. 인생의 환희를 맛본 젊은이들은 적을 제거하면 지상의 비밀 정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고, 실패해 죽음을 당하더라도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어 살인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졌던 동시다발 연쇄 테러의 범인들이 테러 전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다. 테러범들이 목격한 호텔 방에서 바늘과 주사기가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이들이 최음제의 일종인 캡타곤을 복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찰은 범인들이 이 약의 효과 덕분에 침착성을 잃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테러 몰약’이라고 불리는 캡타곤을 복용한 사람은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무적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선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마약은 꼭 암살이나 테러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엔 수영·역도·마라톤 등 육체와 정신의 힘을 겨루는 각종 스포츠 분야에서도 ‘금지 약물’이라는 이름의 마약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현실을 왜곡하고 감각을 마비시켜 잠시나마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게 해 주는 게 마약의 부정적인 효능인 셈인데, 그런 측면에서라면 총선에서 흔히 나오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나 소지역주의 등도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흐리는 마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약은 시간이 흐르면 약효가 떨어진다. 점,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결국엔 몸을 망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특정 지역,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들먹이며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려는 온갖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마약과 선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지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52	
경 제 부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